

2562
2018

05

고
성
제
2
**불교
이야기**



지 삼
내지
말라
나
**계
율
이
야
기**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결
당
에
담
긴
이
야
기
**무
거
우
면
내
려
놓
지**

불교총지종

뜰에 심은 저 나무가 매일 자라나지마는
항상 보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과 같아
우리 수행 과정에도 매일 성품 좋아지나
항상 보는 사람들은 좋아진 줄 모르지만
오록 칠년 지나보면 좋은 성품 보일지라.
이 이치를 미리 알고 가족 간에 서로 도와
꾸준하게 믿고 믿고 심공도록 할지니라.



우드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

불교총지종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므로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마중물_10

사랑의 연등
— 정운스님



십선성취_30

빼빼가족,
버스 몰고 세계여행
— 덕현



울림_40

옆을 보라
— 이원규

04 불교이야기

10 마중물

14 계율이야기

18 살다보면

24 향유

30 십선성취

34 마음의 등불

36 애견 칼림

40 울림

42 씨앗한알

45 산책

46 새이야기

50 법행기 속으로

54 생활 속 식물이야기

58 설화 속으로

62 거꾸로보기

66 독자기고

70 SNS 세상 돌아보기

72 걸망에 담긴 이야기

74 뜻 바루기

76 되짚어보기

78 컬러링 만다라세상

고성제2_화령

사랑의 연등 — 정운스님

심의~~드~~를 떠나 지내지 말라 — 법경

옥석을 가리는 기준 — 이옥경

일상에서 만난 참회 — 강동현

빼빼가족, 버스 몰고 세계여행 — 덕현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 — 하수일

심장사상증 心臟狀態 — 권도형

옆을 보라 — 이원규

풍요로운 믿음 — 이정우

그날 — 김대곤

멧비둘기 — 정옥식

일체가 연 짓는데 있다 — 법수연

생각을 키우는 힘 — 맨지 — 이태용

신을 거꾸로 신은 부처님 — 보현

거위의 배를 갈랐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 박현희

화전놀이 — 우연

절실한 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공

무거우면 내려놓지 — 법일

반연 反顛 — 김재동

속세俗世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부처님 오신 날에

2500여년 전에 저 멀리 인도 땅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타마 싯다르타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길에서 태어나 평생토록 길을 걸으시며

곳곳에서 설법을 하시다가

길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에 두른 한 벌의 옷과

발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사바세계의 고통 받는 중생들이 가여워서

편한 생활도 마다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곳곳을 다니시면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모든 과로움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오는 것이니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 이 세 가지를

잘 단속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아직도 우리들에게 빛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말씀 한 마디라도 다시 새겨듣고

마음의 거울로 삼아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부지런히 정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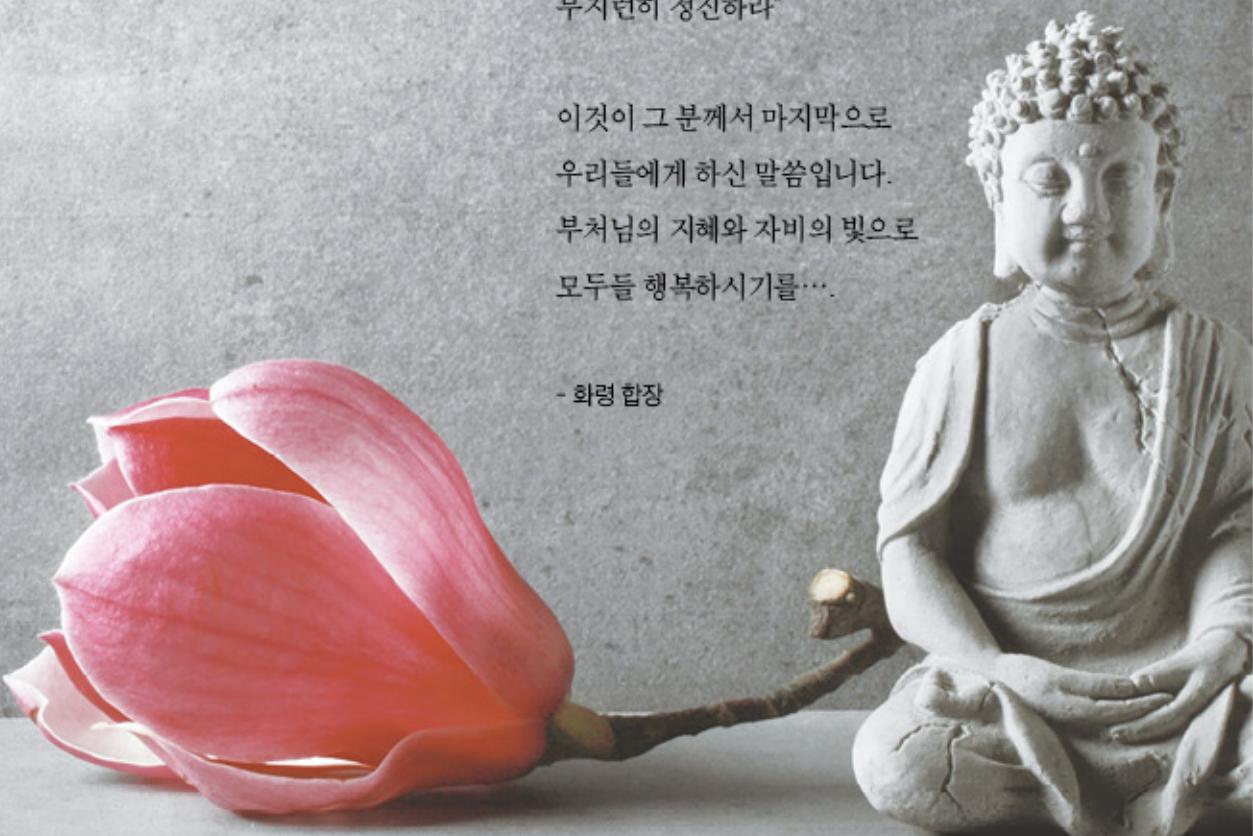
이것이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모두들 행복하시기를….

- 화령 합장



화령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 주교



번뇌와 업

집성제는 사성제에서의 두 번째 항목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를 말합니다. 집성제에서는 우리의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이 갈애^{갈애}에 있다고 말합니다. 갈애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욕망에 뒤덮힌 상태를 말합니다. 물을 떠나 물에 나와 있는 물고기가 숨을 할딱이는 정경을 그려보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갈애는 곧 번뇌인데, 다른 말로는 흑^흑이라고도 합니다. 번뇌는 산스크리

트 kleśa의 의역으로서, 우리의 심신을 어지럽혀 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업→고의 구조에서 살펴 본 것처럼, 우리는 번뇌에 의하여 업을 짓고 그것에 따라 고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는 고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번뇌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흔히 '백팔번뇌'라고 말하지만, 실은 번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번뇌덩어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번뇌도 크게 나누면 탐욕^{탐욕}·진에^{진에}·우치^{우치}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탐·진·치 삼독의 번뇌라고 말합니다.

탐욕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하여 취하고 싶다는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물건이나 지위나 명예, 혹은 이성에 대한 욕심 등 인간사의 모든 것이 욕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에 대하여 화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싫어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지 못했을 때에도 진에는 일어납니다. 탐욕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라면 진에는 싫어하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집착으로서, 이것은 자기의 심신을 괴롭히고 나아가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번뇌의 밑바탕에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은 가지려고 욕심내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성향으로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기에 대한 주의를 크게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무의식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심리와 거기에 따른 작용이 업의 축적으로서 나타나고, 그것이 윤회를 거듭하면서 고를 받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탐욕과 진에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번뇌는 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치란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진실을 진실 그대로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 미혹된 것을 우치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은 지혜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불교에서는 특히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의 진리를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십이연기의 첫머리에도 무명이 자리 잡고 있듯이 무명이라는 우치의 번뇌는 모든 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고를 놓게 됩니다.

탐욕과 진에도 그 근저에는 무명, 즉 우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치, 즉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제행무상, 제법무아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아라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촉하는 모든 대상을 영원히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며, 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를 얻고 무명을 물리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

음에서 모든 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치, 즉 무명과 그로 인한 탐욕과 성냄이 온갖 고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일상을 관찰해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한지,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등을 잘 따져 보면 결국은 탐진치 삼독에 연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리석음 때문에 부질없는 욕심을 내게 되고, 그 욕심의 대상을 가지지 못하므로 거기에 대해 화를냅니다. 나의 욕심을 충족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바깥의 대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되는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도 욕심을 내고 화를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육신은 시간과 함께 변하기 마련인데도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우울해 하고 화를냅니다. 어리석음으로 연기로 이루어진 세계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부질없는 욕심을 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하며 놉니다. 커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것들이 어릴 때는 자기의 전부인양 느껴지고 또래에게 따먹히거나 내기에서 이길 때는 그렇게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기에서 졌을 때는 더 가지고 싶은 욕심과 이길 것에 대

해 분해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도 그럴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재산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거나 권력추구에 매진하다가 마음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한 평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후안무치하다는 비난을 듣기도 하고 가족, 친지와 원수가 되다시피 하며 모은 재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본인의 죽음과 함께 흩어지는 것을 보면 어린이나 어른이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어리석음으로 인한 탐욕과 성냄은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과 권력 때문에 단 하루도 편하게 살지 못하고 탐욕과 성냄의 구덩이 속에서 괴롭게 살다가는 인생, 그러나 이러한 탐진치의 삼독의 번뇌는 이 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업력이 되어 또 다른 생에서 그 고통을 되풀이한다는 데에 더 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혹’이라는 한마디로 나타내어지는 탐진치 삼독의 번뇌는 업력을 수반합니다. 업은 산스크리트어 karman의 의역으로서, 행위, 행동, 작용, 행하는 힘 등의 뜻이 있는데, 주로 쓰이는 것은 행위의 의미입니다. ▲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편합니다.

사랑은 따뜻합니다.

사랑은 자유롭습니다.

사랑은 아이처럼 순수합니다.

사랑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진정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을 관여하지 않고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할 줄 알아야 해요.

- 혜민스님 -



사랑의 연등

정운 스님
조계종 교육이시리스님



출가 이후 자애나 연민심, 깊은 덕보다는 지혜를 중히 여겼다. 이번 생에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던 터라 내 공부를 위해 서는 지나칠 만큼 이기적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지혜가 조금 모자랄지라도 덕을 갖춘 따스한 수행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늦게 철이 든 것이다. 그나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몇 년 전, 미얀마에서 수행했던 자애명상 때문이고, 한 수행자의 보살 행에 감동받은 추억 때문이다.

두 번째로 미얀마에 갔을 때는 굳은 마음을 먹은 터라 외국인에게 엄격한 판디타라마 수행센터를 선택했다. 미얀마는 사찰마다 수행구조나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다. 외국인들만 수행하는 곳이 있고, 내외

국인이 함께 생활하는 사찰도 있다. 이 수행처는 숙소가 각자 따로 있고, 선방에서 내외국인이 함께 수행하는 곳이다.

새벽 세시 반부터 밤 아홉 시까지 중간 휴식이 두 번 정도 있고, 평균 열세 시간을 선방에서 보내야 한다. 자국인끼리 숙소를 왕래하거나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중간에 선방을 이탈해서도 안 될 만큼 규칙이 까다롭다. 이를테면, 외국인은 명상 지도하는 스님과 인터뷰(수행한 것을 보고함)가 있어서 잠시도 한눈팔 수 없을 정도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서로 각자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마음 따뜻한 수행자를 참 많이 만났다. 몇 년이 지났어도 내 마음 한켠에 있는 수행자는 이십 대 후반의 인도네시아 사미니이다.

이 사찰은 깊은 숲속에 있어 매일 청소를 하지 않고 사흘에 한 번, 대중이 대청소를 한다. 그런데 대중이 청소를 할 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없는데도 그곳은 늘 깨끗했다. 화장실의 변기는 물론이고 주변에는 먼지티끌 하나 없고, 휴지통은 늘 비워져 있었다.

게다가 화장실에 걸어 놓는 수건도 하루 단위로 바뀌었다. 화장실을 드나들면서 ‘청소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도대체 누가 청소하길래 이렇게 깨끗하지?’ 누가 이렇게 이쁜 짓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그 곳을 벗어나면 그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좌선 중간에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미니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서야 알았다. 귀엽게 생긴데다가 늘 생글생글 웃고 다녀 마주치면 미소를 짓던 사미니였다. 이 사미니는 다른 수행자들이 쉬는 시간에 청소하면 수행자들이 불편할 것을 염려해 모든 사람들이 좌선할 때 조용히 청소했던 것이다. 그 당시 그 스님이 선방에 온 지 6개월쯤 되었다고 했으니 그 일을 꽤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다.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그 스님임을 알고 한국 물건을 하나 선물했다. 볼 때마다 기특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부끄럼기도 하였다.

그 당시는 3개월가량의 우기 기간(6월~8월)으로, 매일 밤낮으로 비가 폐부었다. 한기가 들 정도로 비가 내려 으슬으슬 추울 때도 많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선방 입구에 생강차가 담긴 보온병이 놓여 있었다. 보온병 뚜껑에 ‘보시하는 것이니 누구나 드세요’라는 영문 글귀가 쓰여 있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누가 매일 뜨거운 생강차를 끓여다 놓는지, 누군지 모를 보시자에게 감사하며 몇 차례 생강차를 마셨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인도네시아 사미니가 자신의 숙소에서 끓여다 무거운 보온병을 선방으로 옮겨 놓은 것이었다. 그 스님이 끓인 생강차임을 알고 또 한 번 감탄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생강차를 그곳에서 마신 것 같다.

사월 초파일만 되면 쉽게 보는 문구가 ‘지혜의 등’이라는 문구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고, 부처님도 지혜를 강조하셨다. 한편 부처님께서는 탐욕심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자애 명상을 권하셨

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발원해 주라는 뜻으로 자비행 실천을 말씀하셨다.

즉 내가 알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라는 뜻이다.

이밖에도 부처님께서는 자애*를 포함한 연민심*·함께 기뻐하는 마음*·평온*인 사무량심을 강조하셨다. 바로 이것이 나와 더불어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기를 발원하는 보현행원이요, 회향의 의미인 것이다. 내가 기도한 공덕이 나만이 아닌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미치기를 기원하는 그 회향심이다.

이번 초파일에는 내 마음의 평온함은 물론이고, 모든 중생이 더불어 행복하기를 발원하는 ‘자비의 연등’, ‘회향의 연등’을 달아보자. ‘사랑의 연등’을 달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연등이 사찰에 걸려 있는 날까지, 그대가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

-『이 순간 행복하라』



삼의三衣를 떠나 지내지 말라

법경

불교총지증 밀교연구소 소장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청정한 계율 36



사타법 捨壘法

불교에서 출가 수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계율을 율#이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 가장 무거운 벌이 바라이죄다. 그래서 바라이를 중죄#라 한다. 바라이라는 말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이다. 살#·도#·음#·망#의 네 가지를 범하는 죄이다. 이를 사바라이라 하며, 번역해서 사중죄#라 한다. 이를 범하면 불공주不共住, 즉 승단으로부터 추방된다.

바라이 다음이 승잔죄#이다. 바라이 보다 덜 무거운 죄로, 비구의 경우는 13가지, 비구니는 17가지의 조문#이 있다. 승잔죄를 범하면 추방되지 않고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이를 별주#라 한다. 대중 앞에서 참회를 하고 근신생활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개선#되었음을 인정받게 되면 승단으로 다시 돌아 올 수 있다. 즉 승단에 남게 되는 죄이므로 승잔죄인 것이다.

승잔죄 다음으로 사타법이 있다. 사타법#에 대해 이번 호부터 계속 살펴보려고 한다. 사타법은 비구 비구니의 경우 30개의 조문#이 있다.

사타법이란 출가 수행자가 소유를 금하는 물건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저촉된 물건은 버려야 하고[捨], 이를 참회해야 한다[墮]는 법이다. 즉 사타법은 소유에 대한 참회법이라 할 수 있다. 금지된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물건을 내놓고 청정한 비구 앞에서 범한 죄를 드러내어 참회해야 하는 것이다.



사타법^{サタ法}의 조문^{條文}과 인연담^{因縁談}

사타법은 모두 소유에 관한 규칙이다. 대부분 옷, 좌구^{坐具}와 와구^{臥具}, 금은 보물, 발우, 약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 가운데 옷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자 한다. 출가 수행자는 3벌의 옷을 가진다. 이를 삼의^{三衣}라 한다. 그런데 이 삼의를 벗어나서 생활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규정이 사타법 제2조 ‘이삼의숙계^{離三衣宿戒}’이다. 즉 ‘삼의를 벗어나 자지 말라’는 계율이다. 그 인연담을『사분율』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육군비구들이 많은 옷을 친구 비구에게 맡겨놓고 돌아다녔다. 부탁을 받은 비구들은 옷에 벌레가 생길까 두려워 자주 옷을 꺼내서 햇볕에 말리어 소독했다.

욕심이 적고 두타행을 좋아하는 비구들이 이를 보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육군비들을 불러 꾸짖고 대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옷과 관련된 계를 제정하였다.

“만약 비구 비구니가 옷을 받은 다음 삼의^{三衣} 가운데 하나라도 소유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잠을 자면 사타법이다.”

‘이삼의숙계^{離三衣宿戒}’의 가르침

삼의 가운데 하나라도 소유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서

는 안된다. 새가 날개를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이 출가 수행자는 수행자의 옷인 삼의^{三衣}와 떨어져서 자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즉 출가 수행자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되며, 그 위의를 지켜야 한다는 계법이다. 물론 옷에 벌레가 생기게 해서도 안되며, 항상 옷을 잘 관리해야 하고, 또한 별에 수시로 말려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여기서는 청결의 의미 보다 출가자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는 삼의를 항상 몸에 지니고 돌아다녀야 한다.

삼의^{三衣}는 출가 수행자에게 있어서 의복인 동시에 나무 아래에 머물 때는 좌구^{坐具}로, 노숙을 할 때에는 와구^{臥具}와 침구^{枕具}로도 쓰인다.

출가자가 세 벌의 옷만 지니는 이유는 검소한 생활,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그럼으로써 수행자의 품격을 유지하게 된다. 재가자들의 평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소유한 물건이 많으면 마음이 쓰여서 수행에 방해가 된다. 소유물을 최소화 하는 이유다.

이와 같이 사타법 제2조의 ‘이삼의숙계^{離三衣宿戒}’는 소욕지족의 승가생활과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다음 호에서는 비구니에게 옷을 헬게 하지 말라’는 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석을 가리는 기준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중학교 2학년 때쯤의 일이다. 그때만 해도 환경미화 검사라는 게 있었다. 정해진 날까지 교실 뒤의 계시판을 멋지게 꾸미고, 유리창도 반짝반짝, 바닥이며 구석구석 청소도 말끔히, 커다란 주전자에 컵 몇 개, 수건 몇 장, 빗자루 걸레 몇 개까지 정해진 개수를 딱 맞춰야 하는. 교납금에 쫓기던 아이들이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모자라는 집기를 맞추고, 몇 날 며칠을 해가 저물 때까지 텔고 쓸고 닦느라 진을 빼고 나면 선생님들이 줄지어 교실을 들며 채점지에 점수를 매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급에는 환경미화상이라고 쓰인 까만 호마이카 상패가 주어졌다. 그게 뭐라고, 우리는 너나 없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지금 생각하면 주객이 전도된 일이 분명하건만, 성적 우수상패를 받는 것보다 훨씬 쉬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담임선생님들도 환경미화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문제의 사건이 벌어진 건 D-데이를 하루 앞둔 금요일 오후였다. 두어 달 전에 빼앗겼던 상패를 되찾아 와야 한다는 일념으로 선생님으로부터 무언의 압력을 받아가며 최종 마무리에 열을 올리던 참이었다. 개구지기로 소문난 친구가 교실 안을 휙젓고 다니다가 양동이를 걷어찼고, 걸레를 뺏던 시커먼 물이 온 사방으로 튀면서 음료수대 옆에 나란히 걸어놓은 수건을 흠씬 적시고 말았으니. 어쩔 것인가. 후딱 빨아서 말리는 수밖에.

그런데 이게 웬일? 깨끗이 빨아서 교실 앞 화단의 나뭇가지에 걸쳐 두었던 수건 두 장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이다. 바람에 날아가기라도 했나 싶어서 근처를 살피고 있으려니 2반의 친한 친구가 살짝 귀띔을 해 준다. 자기네 반에서 걷어갔다고.

참을 내가 아니다. 수건을 찾으려 돌격 앞으로! 당연히 찾아야 하고, 당연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우르르 몰려나온 2반 아이들은 문 앞을 막아선 채 요지부동, 이구동성으로 그 수건이 자기네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어린 마음에 어찌나 충격이 컸던지. 그런 방법으로 모자라는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남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길 수 있다는 게, 열대여섯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거짓을 사실이라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놀랍고 믿어지지 않아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사람 마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불의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똘똘 뭉친 2반 아이들과 달리 강 건너 불구경인 우리 반 아이들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 반 아이들의 침묵을 응원 삼아 2반 아이들은 의기양양을 넘어 기세 등등이었다. 수건을 흔들어 보이며 약을 올리는 아이에, 철벽 수비에 밀려 교실 문턱을 넘어 보지도 못하고 복도에서 홀로 대치전을 벌이고 있는 내 어깨를 툭툭 밀어붙이는 아이들까지.

물러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외로운 순간을 정리해 준 건 우리 담임선생님이었다. 소문을 듣고 오신 듯 잔뜩 얼굴이 굳은 선생님을 보자 기운이 불끈, 이제 수건을 되찾을 수 있겠거니 어깨가 으쓱해지려는데 역시나! 선생님이 2반 아이들에게 문제의 수건을 가져 오라고

하셨다. 하지만 만세라도 부르고 싶을 만큼 내 마음이 승자의 설렘으로 부풀어 오르던 것도 잠깐, 선생님은 수건을 받아들자마자 소각장으로 향했고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수건에 불을 붙이셨다.

지금도 눈앞에 선하게 그려진다. 채 마르지 않은 수건에서 피어오르던 가느다란 잿빛 연기, 말없이 그것을 지켜보고 섰던 선생님의 뒷모습, 전의를 잃은 2반 아이들의 수런거림… 그리고 서운함 반, 후련함 반, 그 모든 게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울고 싶어지던 내 마음까지도.

그날 종례시간에 2반 선생님이 몇몇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사과를 시키고 돌아갔지만, 우리 선생님은 환경미화 심사가 끝날 때까지 모자라는 수건을 채워놓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셨다. 그것은 환경미화상을 포기하라는 말이기도 했다.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친구를 돋는 일에, 학급을 위한 일에 나 몰라라 했으니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였다.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잘못을 고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라며 아마도(지금 생각하면) 내게 하신 말씀인 듯 이기고도 지는 사람이 아니라 지고도 이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아리송한 말씀도 덧붙이셨다.

지난해 가을, 모교에서 열린 총 동문체육대회에서 만난 A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제 몫의 기념수건을 내 손에 쥐어주더니 옆에 있던 B의 것까지 뺏어다가 그 위에 얹었다. 30여 년 전에 슬쩍했던 수건을 갚는 것이란다. B도 공범이었다며 강제로 무릎을 꿇리는 A의 너스레

에 악자한 웃음이 터지고, 40여 년이 넘었으니 수건에도 이자를 붙여야 한다는 누군가의 말에 A와 B가 2번이었던 친구들을 향해 수건을 모두 내놓고 용서를 빌라며 한바탕 야단법석을 떨었다.

단편적이기는 했으나 많은 친구들이 어렵잖이나마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저마다 제 입장에서 저 편한 대로. 그러다 보니 더러는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기도 했다. 기억의 색깔이야 어쨌든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착하고 순하다는 게 어찌나 다행스러운지.

얼마 전의 일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잡아떼는 사람이 부지기 수인 세상에서 40여 년 전, 어린 시절의 치졸한 잘못을 잊지 않았다는 게 어디 보통일인가. 그러니 됐다. 굳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일도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면 안 될 것도 못할 것도 없다.

곧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도토리 키 재는 끝 후보들의 면면과, 도긴개긴 수많은 공약들 속에서 어떻게 옥석을 가릴 것인가. <중도가>의 가르침처럼 ‘남이 비방해도 탓하지 않고, 남의 잘못 또한 탓하지 않으며, 온갖 모함을 공덕으로 돌리는’ 현자의 경지까지야 바라겠냐만 혹시나… 수건 몇 장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슬쩍, 수건 몇 장쯤은 잊어도 된다며 청산에 살어리랏다~ 매화타령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거듭 살필 일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아니다, 모른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자신의 안위를 위해 팔색조를 마다않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중일아합경>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겁이 많은 나는 조심조심 운전을 하는 편이고 장거리 전문, 악천후 전문, 야간 전문이라고 농담처럼 말을 하며 나름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만히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뒤차가 와서 내 차를 박아버렸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고 했지만 정신은 멀리 달아나고 다리가 후들을 거리고 속이 메스꺼웠다. 보험회사 직원이 와 일처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다. 가족들에게 사고 난 이야기를 했고,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어서 앞차 까지 박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몸도 아픈 것 같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쩐지 마음이 짠해서 가족들을 한 번씩 안아주었다.

“아, 간다는 인사도 못하고 갈 뻔 했어.”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정말 큰 사고였으면 인사도 못하고 갈 뻔 했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두려웠다. 지금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주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도 많이 듣지만 친구들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내 아이 또래의 자식을 키우고 있으면 더 많이 안타깝고 그럴 때는 좀 더 오랫동안 마음이 우울하기도 했다.

“만약에 말이야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너는 너의 본성대로 너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 주기를 바래. 네 인생은 소중하니까 알겠지?”

딸에게 교육 아닌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내 친구가 오랫동안 투병을 하고 떠났을 때, 아이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내가 스무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마음껏 울지도 못했고 그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이 죄책감이 되기도 했다. 마치 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이 기도나 염원으로 아버지의 삶을 빼앗아 간 건 아닌지 겁을 먹기도 했다.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쁘게 행동하고 나쁘게 말했다면 다만 용서해 달라고 나는 서원당에서 얼마나 참회를 했는지 모른다. 아버지 불공은 지금까지 빼 놓지 않고 하는 까닭이 아버지에 대한 참회의 의미다. 미워해서 죄송하다는 참회. 자식을 낳고 보니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날마다 들고 날마다 좋은데, 아버지도 그려셨겠구나 싶었다.

우리 가족들은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편인데 80이 넘으신 엄마가 미안해 하셨다. “나는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라. 그래서 자랄 때 너희들한테 상처를 많이 줘서 미안해.” 하신다. 넘치고 넘치게 사랑을 주셨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서 더욱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한다. 그것보다 더 자주자주 의견 충돌을 일으켜 사이가 나빠질 뻔 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그래도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표현하는 것이 정말 좋다.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염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애한테 “멀리 보아도 좋고 가까이 보아도 좋구나.” 하면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다 이쁘답니다.” 한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얼굴은 빙그레 웃고 있다. 남편이 퇴근을 하면 다 같이 현관에 나가 환영을 한다. 다 한 번씩 껴안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잠깐이라도 물어 본다. “보고 싶었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한다. 일찍 출근을 하는 남편은 애와 나한테 일일이 뾰뽀를 해주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출근을 한다. 어떤 날에는 잠을 자고 있어서 모를 때도 있고 어떤 날에는 그 뾰뽀 때문에 잠에서 깨기도 한다.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말하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상담을 받기도 한다.

남편이 생선뼈를 발라서 내 밥숟가락 위에 얹어 줄 때도 좋고 “살빼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삽시다.”고 협박하듯이 말해도 좋다. 아침마다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 놓고 출근하면서도 생색 안내는 것도 귀엽고 내가 만든 요리가 맛이 없어도 화내지 않고 나 몰래 버리는

것도 나는 다 알고 있지만 그것도 좋다. “장모님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하고 온 동네방네 자랑해서 손님을 며칠 동안 데리고 와도 엄마는 좋다고 하신다. 엄마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모든 자식들을 위해서 염송하고 자식들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기도와 염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그런 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해 오신 게 자랑스럽다.

별 탈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기도와 염송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렸을 때도 불안하거나 무서우면 “옴마니반메훔”을 외라고 하신 엄마 말씀을 잘 따랐던 것 같다. 가끔은 밤에 무서운 꿈을 꿔도 꿈속에서도 옴마니반메훔 진언을 외웠던 기억이 있다.

사고를 겪고 나니 참 많은 것들이 고맙고 또한 새롭다. 차의 뒤만 부셔져서 공업사에 맡겼고, 나는 아주 조금 다쳤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 걱정을 해 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말을 한 것은 진심이다. 침을 맞고 아파서 며칠 동안 출근을 못했지만 “아고 감사합니다. 이만만 하기를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 사고 다음날이 진짜 아프다더니 온몸이 쑤시고 등뼈도 아프고 목이랑 어깨도 아파서 힘들었지만 오늘도 아이를 볼 수 있어서 좋고 사랑한다고 말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렇게 오랫동안 절에 다니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염송을 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서원이 며칠 전부터 눈에 확 띠고 그 서원을 할 때는 아주 큰 소리로 읽게 되는 것이다. ‘교도 가정 제재난 사바하.’

내가 하지 않아도 서원당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빌어 주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교도 가정’ 속에 나도 들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영혼 없이 읽었는지 부끄러울 뿐이지만 어쩐지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서원당에서 내려오다가 만난 보살님께 합장하고 깊이 고개를 숙이는 것도 나의 이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요 며칠 한의원에 침 맞으러 다니면서도 서원당에 나간다. 시간 없다고, 월초 기간이 아니라고, 기도할 것이 없다고 요리조리 피했던 자신에게 참회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나는 내일도 서원당에 갈 것이다. 여전히 등뼈가 쑤시고 저리고 아프지만 말이다. ━



남지 유채꽃 축제를 다녀와서

김경인
성화사 교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로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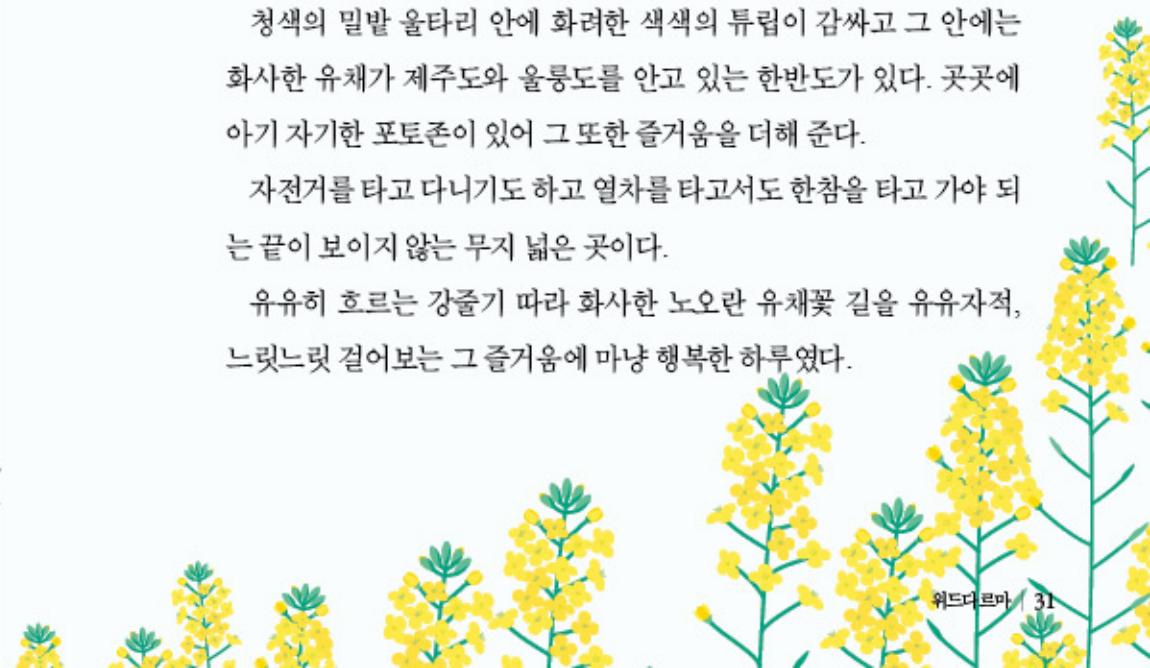
앞 다투어 피어나는 꽃 속에서 화사한 노란색으로 몸치장 하고 내가 질소냐 봄소식을 전하러 한들거리며 피어 있는 유채꽃. 남지 유채꽃 축제는 4월 13일 ~ 17일까지 전국 1위를 자랑하며 그 면적이 33만 평으로 대단하였다. 낙동강 줄기 따라 길게 뻗어져 있는 유채꽃밭을 도현 정사님, 남혜 정사님, 정각사, 자석사, 성화사 보살님들과 함께 차창 밖의 노랑색 물결에 환호성을 지르며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겨우내 얼어 붙은 땅 속에서 꾱꼿이 자라온 유채는 봄 마중 나온 꽃 중의 꽃, 노오란 물결 속에 사람들은 한 포즈 멋지게 잡고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고 튜립도 각각의 색으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고 튜립도 각각의 색으로 치장하고서 날 봐 달라고 방긋거린다.

청색의 밀밭 올타리 안에 화려한 색색의 튜립이 감싸고 그 안에는 화사한 유채가 제주도와 울릉도를 안고 있는 한반도가 있다. 곳곳에 아기 자기한 포토존이 있어 그 또한 즐거움을 더해 준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열차를 타고서도 한참을 타고 가야 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무지 넓은 곳이다.

유유히 흐르는 강줄기 따라 화사한 노오란 유채꽃 길을 유유자적, 느릿느릿 걸어보는 그 즐거움에 마냥 행복한 하루였다.



빼빼가족, 버스 몰고 세계여행

덕현

법천사 전수



아버지, 어머니, 10대 자녀 셋. 평범한 이 가족들은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무탈’이라는 미니버스를 몰고 세계여행을 한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말라서 ‘빼빼가족’이란 별명이 붙은 이들의 당차고 유쾌한 여행기를 살펴봅니다.

시작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선언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팔고 그 돈으로 세계여행 가자!!”

아버지의 제안을 가족들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렇게 빼빼가족은 세계여행을 떠났습니다. 유라시아대륙의 동쪽 끝, 포항 간절곶에서

출발하여 서쪽 끝 포르투칼 호카곶까지.... 빼빼가족은 4평 남짓한 무탈이(미니버스)를 몰고, 25개국 163개 도시를 여행하였습니다.

빼빼가족은 350일 동안 여행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무탈이가 고장나서 난감했던 일, 시베리아에서 북한 사람을 만났던 일, 여권과 노트북 여비 등을 잊어버렸던 일, 집시가족 이야기 등 특별한 경험과 가족들의 감상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진과 여행그림들이 글을 읽는데 흥미를 더합니다.

또, 이 책에는 부록으로 ‘캠핑카 준비하기’가 실려 있습니다. 누구나 궁금해 하는 미니버스에 전기시설, 난방시설, 수도시설, 조리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로 국경 통과하기’에서는 구비서류 및 준비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나라별 검문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행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까지 독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모든 것이 빠짐없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기행문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도시와 나라, 유적지를 책을 통해 여행할 수 있게 해주며, 저자의 감상과 지식을 통해 그 나라와 도시를 이해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빼빼가족, 버스 몰고 세계여행』을 신문 광고를 보고 책을 구입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빼빼가족 모두가 여행을 결정하기까지 꽤 고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업과 학업을 잠시 멈추고 1년 동안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빼빼가족의 용기가 참 부럽습니다. 온 가족이 버스를 타고 세계 여행을 결심하다니....

제가 버스로 여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이런 저런 걱정과 돌 아왔을 때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지 걱정만 하다 결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족을 빼빼 가족이 있는 곳에 대입시켜 봅니다.

그러면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가족구성원이 같은 추억을 공유하는 것은 그 가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바이칼 호수로 떠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먼 여행에 가족들이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 이들은 '바이칼 호수까지만 가자, 좀 만 더 힘내자'며 서로를 격려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목표로 한 바이칼 호수에 무사히 도착했고, 책에는 호수의 붉은 석양을 바라보며 가족들이 눈시울을 붉히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 가족에게 바이칼 호수는 힘든 상황에서도 그 고난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이상향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이상향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은 감동적이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인내하는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호수의 사진을 보면 어느 곳이 물이고 하늘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의 품에 안겨 석양을 바라보는 빼빼가족의 모습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입니다. 낯선 나라에서 갖은 고난을 이겨내 목표를 이루고 아름다운 자연을 가족과 함께 바라본다면 그 유대감이 얼마나 클까요?

아버지의 든든함과 지도력, 어머니의 결단력, 그리고 믿고 따라주는 가족, 서로의 신뢰가 느껴집니다. 그 작은 4평짜리 미니버스 안에서 5명이 생활하며 여행하는 가운데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빼빼가족, 함께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1년 동안의 여행에서 돌아와 다시 학교, 사회에 적응하려면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 1년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은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얻을 수 없는, 빼빼 가족 그들이 만들어낸 홀륭한 자산일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공과 기도 또한 마찬가지이겠지요. ▲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



君子之事親也
思其不可及者而先施之
念其不可久者而竭力焉

군자지사친야
사기불가급자이선시지
념기불가구자이갈력언

군자가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는
미치지 못할까를 생각하여 먼저 행하고
오래하지 못할까를 염려하여 힘을 다해야 한다

<효유불급설(孝有不及說)> 《송정집(松亭集)》

하수일(河受一)
조선 중기의 문신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님은 그 자리에 항상 그대로 계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늘 친구와 먼저 즐기고 내 자식을 먼저 챙기면서 생각 합니다.

“다음에 ……”

“더 좋은 기회에 ……”

그러나 ‘다음’에 부모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기회’에도 부모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글의 지은이는 “자식이 봉양하려 하지만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子欲養而親不待]”는 옛말을 대하면서 그럼 어찌해야 하는지를 제시해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함에 있어서 다음 기회란 없습니다. 늘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생각이 드는 것... 그것부터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이정원 책임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심장사상충 心臟絲狀蟲

권도형

닥터펫동물의료센터 원장
수의내과학 석사
수의사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심장사상충 心臟絲狀蟲’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 고양이들의 심장에 기생하는 실모양의 ‘기생충**’으로 한번 감염이 된다면 생명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것이죠.

기생충의 경우 치료제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이후 약으로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심장사상충’은 심장 및 혈관의 ‘비가역적 非可逆的’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많은 문제를 유발한답니다. 따라서 심장사상충 만큼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거듭강조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양이의 경우 강아지와는 달리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경우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으로 감염을 차단해주셔야 합니다.

심장사상충이란 기생충은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기생충입니다. 모든 모기가 심장사상충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모기가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동물의 혈액을 흡혈할 때 그 유충**을 같이 흡입하게 되고, 그 상태로 건강한 다른 동물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유충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면 ‘모기가 있는 계절’에만 예방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테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랍니다. 전 세계 심장사상충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심장사상충 전파가능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지역에서는 연중예방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르면 3월부터 모기가 보이고 늦게는 11월에도 모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중예방을 해주시는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예방약을 선택하는것이 좋을까요?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수의사 선생님과 심장사상충관련 상담을 진행해보시면 작은 알약형태의 예방약부터 피부에 바르는 ‘스팟-온

(spot-on)’ 형태의 약품, 주사제까지 다양한 예방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심장사상충만 단독으로 예방하는 약품과, 한번의 예방으로 외부기생충(벼룩, 이, 진드기, 등)까지 예방이 가능한 약품도 분류되어 있고, 한달에 한번씩 예방을 하게 되는 약품, 일 년에 한 번 주사로 예방을 하게 되는 약품, 등 약효의 지속시간도 다양하죠.

그렇기에 스스로 어떤 예방약을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수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나와 나의 반려견에 맞는 약품을 선택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심장사상충예방약이 독해서 반려견, 반려묘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달 또는 석 달에 한 번씩 예방하시는 것이 좋다는 ‘유언비어^{遺言蜚語}’를 접한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장사상충예방약이 치료제로 사용될 경우 예방용량의 100배를 매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반려견의 몸, 특히 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답니다.

또한 피부에 바르는 ‘스팟온’ 약품의 경우, 약품 적용 후 피부의 발적이나 소양감^{搔痒感}을 보이는 반려동물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약품이 독해서가 아니라 그 약품이 반려견의 체질과 맞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특정화장품, 연고, 등 피부에 어떤 물질을 접촉시킨 후 발적 및 소양감이 나타난다면 ‘이 제품이 나와 맞지 않는가보다’라고 생각

하게 되죠. ‘이 제품이 너무 독한가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요?

혹시나 심장사상충 예방이란 것을 모르고 계시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고, 지금부터라도 예방을 시작하고 싶으신 보호자님들께서는 반드시 심장사상충 감염 여부를 먼저 검사하고 감염이 확인되지 않으면 예방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3개월 이상 심장사상충 예방이 중단된 경우 심장사상충 감염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상태로 아무런 조치없이 예방약을 투약하게 되면 심한 경우 쇼크^{shock}에 의한 사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 해주세요. ▲





앞만 보지 말고 옆을 보시라.
버스를 타더라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앞만 보며 추월과 속도의 불안에 떨지 말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시라.
기차가 아름다운 것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창밖은 어디나 고향 같고 어둠이 내리면
지워지는 풍경 위로 선명하게 떠오르는 얼굴들
언제나 가파른 죽음은 바로 앞에 있고
평화로운 삶은 바로 옆에 있지요.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를 밟고 가는 이에게 돌을 던지지는 말아야지요.
누군가 등 뒤에서 꼭 같이 뒤통수를 후려칠지도 모르니
앞서는 이에게 미혹되지도 말고
뒤에 오는 이를 무시하지도 말아야겠지요.
일로매진 一勞選의 길에는 자주 코피가 쏟아지고
휘휘 둘러보며 가는 길엔 들꽃들이 피어납니다
평화의 걸음걸이는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것
오로지 앞만 보다가 화를 내고 싸움을 하고
오로지 앞만 보다가 마침내 전쟁이 터집니다.
더불어 손잡고 발밑의 개미 한 마리,
풀꽃 한 송이 살펴보며 가는 생명 평화의 길
한 사람의 천 걸음보다
더불어 손을 잡고 가는 모두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니
앞만 보지 말고 바로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

-「길을 지우며 길을 걷다」

이정우
철학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입을 끊임없이 훌륭한 지혜의 가르침과 교훈, 격언 등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이 달아나 다시는 발불일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가면서 가끔씩 성인들의 가르침을 접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주 '가끔'이고 또는 세속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성현들의 말씀을 접해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지혜의 가르침들이 자신에게 별 소용이 없다며 낙담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자신을 비관적인 존재로 여기며, 소극적이고 열세적이며 운명론적인 자포자기 등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히 정복 당해 지혜의 말씀이 오랫동안 자리 잡을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중한 가르침은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지속적'으로 접해야 합니다. 몸의 일부인 귀와 코가 손 내밀면 만질 수 있고 언제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듯 성현들의 가르침을 몸의 일부처럼 자리 잡게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자금 당장 자기에게 큰 위안이 되거나 힘이 되는 가르침이 있다면 잘 정리하여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두십시오. 또한 그 말씀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자주 들여다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직접 읽어서 테이프에 녹음하여 계속 들어서 잠재의식에 완전히 자리 잡게 하십시오. 그러면 피동적이며 비관적인 생각들은 점점 물러나고 긍정적인 다짐과 생각으로 온 몸이 충만해지며, 지혜의 밝은 빛이 자신의 온몸을 감싸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새 부처님을 닮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단, '가끔'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큰 배가 넓은 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배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각자 자기자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부자들이 많았기에 저마다 자기가 소유한 재산자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오직 젊은 스님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에게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내가 부자임을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매우 유감이요.”

얼마 후 배가 목적지에 닿았고,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산적들의 습격을 받아 부자들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 스님은 마을에서 실의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고 자기 경험과 지식, 그리고 지혜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자신들의 가난을 쉽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다운 부자는 진정 스님이십니다.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만이

이 세상 어느 부자보다도 큰 부자이며,

그 지혜는 어떤 보물보다도 값집니다.”▲

-「길을 물는 그대에게」



햇살이 따사로와 그림자는 늘어지고
하는 일이 분명치 않아
마음이 작아질때

배부름에 다 떨쳐낼수 있었다.
2500원에 힘껏 일어설 수 있었다.

성동시장 뒷길에 어머니 따라
검은 봉지 여러 개 들고
여러 하찮은 기분으로 따라 다닌 날

오늘도 그날 같은
시장길이 피워 오르고 있을까?

커다란 솔에서는 인심이 쏟아지고
수더분한 탁자에 수제비 한 그릇

*성동시장은 경주역 앞에 있는 전통시장이다.

검은 봉지를 쓰러지게 옆에 두고
똑딱! 해치울때는



정옥식

조류학 박사
환경생태연구원



산과 들에 널려 있는 온기보다도, 논두렁에 제법 자란 쑥보다도, 세상에 지천인 봄을 비로소 깨닫게 하는 것은 새들의 노래 소리 일 것이다. ‘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 ‘푸드득’ 오늘 아침도 푸른 새벽부터 울던 비둘기들의 노래 소리가 시계 알람 소리보다 먼저 나를 깨웠다. ‘멧비둘기, 네 놈들이었구나.’ 오늘은 비로소 창을 열고 놈들을 확인하였다. 날개를 푸덕이며 치켜든 모양새가 구애 행동처럼 보였다.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이다.

멧비둘기를 영어권에서는 Rufous Turtle Dove 혹은 Oriental turtle dove라고 부른다. Turtle Dove는 유럽에 폭넓게 분포하는 종으로 우리의 멧비둘기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 유럽에서 Turtle Dove는 ‘사랑의 징표’로 여겨진다. 많은 노래와 시에서 ‘비둘기처럼 다정한’ 혹은 ‘나와

결혼해서 나의 비둘기가 되었다’ ‘나에게 비둘기를 주었다’ 등등 깊은 사랑에 대한 표현을 비둘기를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우리의 현실과는 많은 문화적 차이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과거 미국에 서식했던 나그네비둘기 혹은 여행비둘기 *Pasenger Pigeon*로 불리던 새는 1800년대에 30-50억 마리로 추정될 정도로 개체수가 많았지만 사냥 때문에 불과 100년 만에 멸종하고 말았다. 개체수가 줄어든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환경의 변화이다. 급격한 작물의 변화와 더불어 먹이량이 감소한 탓이다. 비둘기들이 좋아하던 조, 수수, 기장, 밀 등과 작은 잡곡류의 재배 면적이 줄고 또한 씨앗이 맷히는 식물들이 자라는 초지가 사라짐에 따라 과거보다 멧비둘기의 먹이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우리가 ‘비둘기’라고 부르는 새에는 사실 많은 종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300여종이 있으며 국내에는 목점박이비둘기, 흑비둘기, 염주비둘기, 녹색비둘기, 홍비둘기, 양비둘기, 분홍가슴비둘기, 멧비둘기 등 총 8종이 기록되어 있다. 비둘기 종류 중 가장 잘 알려진 멧비둘기 *Rufous Turtle Dove*의 경우 참새, 까치와 함께 일반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풋새 중 하나일 것이다. 몸길이는 33cm 정도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폭넓게 분포한다. 산림, 농경지, 도심 등 다양한 서식 환경에서 매우 흔하게 서식하며 먹이 또한 다양하다. 몸은 전체적으로 회갈색이며 등과 날개에는 마치 거북이 등처럼 밝은 색의 테두리를 지닌 검은색의 반점이 있다. 3월부터 6월 사이, 큰 나무의 가지 사이에 나뭇가지를 이용해 엉성하게 만든 둥지에 2개의 흰색 알을 낳는다. 부화기간은 약 2주 정도이며 부화한 새끼는 어미에게서 ‘Crop Milk’, 일명 피죤밀크 *Pigeon Milk*라 불리는 영양물질을 받아먹고 자란다. 멧비둘기의 새끼는 이를 받아먹기 용이하게끔 부

리가 납작하다. 따라서 멧비둘기 새끼를 인위적으로 기를 때 너무 어린 경우 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양육하기가 어렵다.

필자의 경우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멧비둘기의 새끼를 주운 적이 많았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되날려 보내지 못하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올먹이며 돌아올 때가 많았었다. 한번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 기억한다. 방학을 맞이하여 늘 그렇듯 시골 큰댁에 갔었다. 집은 비어 있었고 들과 산으로 논과 밭으로 할머니를 찾아다니다 빨에서 팽이질을 하시던 할아버지를 먼발치서 보게 되었다. 새참을 준비해 가신 듯 이랑의 끝에는 검은 보자기에 덮인 광주리가 놓여 있었다. 얼른 모른 척 하고 할머니를 찾아 다른 곳으로 향했다. 할아버지께선 늘 내겐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고 간혹 던지는 말씀이라곤 “조용히 해!”, “일찍 자!”, “밥 안 먹고 뭐하노!” 등 한 여름 더위도 얼릴 만큼 냉기서린 말씀 뿐이셨다. 나에게 늘 화나신 게 있는 듯한 눈빛이어서 할아버지에 대한 나의 맘은 할아버지 얼굴의 주름보다 더 짙게 주름지어 있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편하였던 터라 그 순간을 피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붉은 민둥산 아래 붉은 흙 사이로 파란 잎들이 뭉개뭉개 솟아난 이랑에서 할머니를 안고 재회를 한 후 할머니와 동행을 하였다. 할아버지께 서먹한 인사를 하고 호미를 들고 밭으로 들어서는 할머니를 따르려는 순간 “저거 열어봐라”라고 언제나 처럼 ‘툭’ 말씀을 하셨다. “밥 묵었습니더”, “밥 아니



다” 마지못해 검은 천을 들춰보니 멧비둘기 새끼가 웅크리고 있었다. 기쁜 마음을 억지로 감추며 광주리를 들쳐 매고 큰댁으로 먼저 돌아왔다.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달덩이만한 검은 가마솥 뚜껑을 열고 승늉 속에서 밥알을 꺼내어 새끼에게 주었다. 얼른 맛있게 받아먹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입을 전혀 벌리지 않았고 쌀을 그냥 주기도 하고 설탕을 물에 타서 주기도 했지만 어떠한 것도 먹지를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맘은 초조해져 갔고 학교를 다니던 동안 그토록 보고파 했던 할머니는 뒤로 한 채 오로지 새끼 곁에 머물고 보살폈지만 결국 죽고 말았다. 양지 바른 곳에 쌀과 함께 묻어주고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냥 당연히 모른 체하고 큰댁으로 돌아왔다.

이제 아버지가 되어 두 아이를 기르면서 마음과 표현 사이의 갈등, 표현에 대한 낯설음, 어색함을 느낄 때가 많다. 몰라주는 현실이 속상하기도 하고 말 재주 없는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어 보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방학을 기다리셨고 새를 좋아하는 손자가 오는 날 마침 약에 쓴다며 새끼 비둘기를 들고 가는 지 인에게서 비둘기를 얻으셨다. 죽은 새를 보며 맘 아파하던 손자를 보며 안타까워하셨고 새끼 비둘기를 찾아 다시금 산으로 들로 다니셨단다.

요즘 아들이 좋아하는 공룡과 관련한 책 혹은 장난감을 사기 위해 인터넷을 자주 뒤진다. ‘엄마랑 잘래’ 하며 껴안은 팔을 애써 풀고 멀어지는 아들을 볼 때면 난 마치 붉은 산 아래 놓인 붉은 밭에 곡괭이를 들고 홀로 놓여져 있는 것만 같다. ▲



일체가 연 짓는데 있다

법수연
화음사 전수

일체가 연 짓는데 있다

(종조 법설집 p.181)

화■와 복■이 다 인연■에 있는 것이고, 친소■도 또한 인연■에 있는 것이다. 복■도 홀로는 안 되는 것이고 화■도 능히 홀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성긴 것이 도리어 친■해지고 화■가 도리어 복■이 되는 것을 볼 때 모두가 연을 짓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육행■이 다 이에 있는 것이다. 대업■이 성취■하는 것도 다 이에 있는 것이고 열반■■ 저 언덕도 또한 여기에 있느니라.

어느 달 어느 날을 막론하고 늘 좋은 인연을 지으며 살아야겠지만 특히 5월은 가정의 달, 부처님오신날이 들어 있는 달입니다. 5월을 맞아 주위의 소중한 인연들을 부처님과 인연 맺어 주는 불자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원정대성사님께서는 우리 총지종을 고해중생에게는 안정체가 되고, 중생교화에는 무진등이 되고, 세계평화통일의 원동력이 되어야한다는

큰 뜻으로 받들었습니다. 때문에 대한불교총지종이 아닌 불교총지종으로 종명을 채택하셨답니다. 비록 과거 전생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지어 온 좋지 못한 인■의 과보로 현재의 삶이 힘들더라도, 좋은 연■을 만나게 되면 지금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칼”이라는 도구에 대해 잠시 생각해봅시다. 주부가 주방에서 칼을 잡으면 어떨까요? 다양한 식재료를 이리저리 다듬는 용도로 쓰여 맛있고 예쁜 요리를 뚝딱뚝딱 만들어냅니다. 의사가 병원에서 칼을 쥐면 어떨까요? 고통 받는 환자에게 쾌유의 기쁨과 삶의 희망을 선사합니다. 흥악범이 칼을 들면 어떨까요? 끔찍한 사건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한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연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이 되지요. 우리 각자 현재 위치에 올 때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며 어떤 인연으로 인하여 여기의 지금 내가 있게 되었는지를 되새겨 보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가끔 스스로 절을 찾아 진실한 교도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누군가가 인연을 맺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동네 살면서 인사 정도 나누던 사이였지만 제도시킨 인연으로 친자매처럼 지내며 모범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얘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그분이 보살님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대체 어떤 일을 하건데 늘 그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세요?” 이내 땅이 꺼질듯 한 한숨을 쉬기에 “나를 따라 절에 한번 같이 가 볼래요?”로 시작이 되었답니다. 보살님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 자주 나오는 여건인데, 이웃을 제도시키고 보니 책임감과 의무감이 생겨 덕분에 자주 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잘 나오던 신교도가 법문에 못 이겨

퇴전하고 있는 중에 보살님은 내심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신교도를 제대로 구할 생각을 했답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마음이 통했든지 시간되면 다시 나가겠다고 한다기에 “그분을 위해 차별회사를 하면서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줌이 불자의 의무이니 약속한 날에 꼭 불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원불공을 1회라도 실천한 다음 연락하세요.”라고 간단한 지침을 일러준 후 저 역시도 신교도가 진실한 교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서원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불공을 시작하려는데 마침내 그분과 보살님이 나란히 서원당에 들어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셋은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소규모 과외지도를 행하듯이 불공을 진행했습니다. 인연의 소중함을 기반으로 경을 읽고 법담을 나누었습니다.

나중에야 들은 말이지만, 그분에게 우리 보살님은 아주 모범적인 모습으로 선망의 대상이었답니다. 그렇기에 그리 두터운 친분이 있지 않았으면서도 말 한마디에 성큼 절까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보살님 입장에서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늘 애민함을 느끼면서 함께 절에 다니면 힘들고 지친 인상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곤 했답니다. 그 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금전 문제였는데 불공을 하며 본인의 힘든 삶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피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절에서 공부한 부처님법과 연결해 보니 그동안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을 지난날 내내 심어왔더랍니다. 돈의 개념에서부터 관리까지 감사한 인연들에게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여 원망을 앞세워 살아온 것을 반성하며 참회불공을 하노라니 자신과 관계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시나브로 바뀌었습니다. 은혜와 감사함으로 충

만한 마음이 되고, 금전관계로 소원▲했던 관계역시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많은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은 불공을 마친 후, ‘고치에서 깨어난 나비가 이처럼 가벼울까요’라는 말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였습니다. 불법을 믿어 깨닫는다 함은 아주 특별한 일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실상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르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가려면 합당한 시험에 합격해야 되듯이 부처님법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법 속에서도 합격하지 못하면(퇴전) 부처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명훈가피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자로서의 의무감을 잊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처님과의 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애쓴다면 고해 중생의 안정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충실히 한 알의 씨앗도 적당한 수분, 양질의 토양, 적정한 바람, 알맞은 온도... 이런 인연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만나야 싹이 트고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선대조상님들에게 못 다한 효도는 부처님과 인연 맺을 수 있는 추선불사로 회향해 드립시다. 자손들을 불법으로 인도하고, 이웃들에게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권선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날 연등 밝힌 공덕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합시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법신비로자나부처님 전에 합장 발원합니다. ┌



생각을 키우는 힘

- 팬지

이태용
원예 교육가



공자님 말씀이 정답!

어느 날 말썽쟁이 아들을 앞에 앉혀 놓고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넌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일방적으로 이어지는 엄마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순간 아들에게 생각이 있다면 오로지 하나.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로 그 ‘생각’뿐. 엄마와 아들의 생각은 평행선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대로라면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갈 뿐입니다.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떠오르는 글이 있습니다.

學而不思則罔 학이불사즉망

思而不學則殆 사이불학즉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요즘처럼 ‘배움’이 목적보다는 수단이 되어 버린 시대에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이 글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의미를 알려 주는 풋대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 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왜 배우는 테 생각이 필요한지, 왜 생각하는데 배움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아직 열 살도 안 된 아이들은 이 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듣고 또 듣다보면 어느 순간 깨달을 때가 있겠지요. 언젠가 그 이치를 깨닫는 순간, 아이에게서 퍼져 나가는 배움과 생각의 향기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 믿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꽃

겨울이 지나고 따사로운 바람이 옷 사이로 스며들 때 ‘생각’은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알록달록한 예쁜 꽃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 꽃의 이름은 팬지. 제비꽃과의 한해살이풀입니다.

팬지는 원래 자연에 존재하던 식물이 아닙니다. 야생종인 비올라로 부터 만들어 낸 원예 품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200년 전인 19세기 초 유럽에서 처음 품종 개량을 시작했는데, 현재는 수천 종이나 되는 품종이 나와 있습니다.

팬지의 어원은 프랑스어인 'Pansées'로 '사색'이란 뜻입니다. 꽃의 모양이 사색하는 사람의 얼굴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그리고 보면 프랑스어 'Pansées'는 우리에게 그다지 낯설지 않습니다. 내용은 몰라도 제목만은 널리 알려진 책『팡세』의 원어 제목이 바로 'Pansées'입니다.

철학적 사고, 인간의 한계, 신학의 영역, 설득술… 참 어려운 말투 성이입니다. 사색을 즐기기 위해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면 실제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사색 없이 그저 대충대충 인생을 사는 게 훨씬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신은 이런 우리의 곤란함을 알고 계셨나 봅니다. 사색의 꽃 팬지를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원래 팬지는 섭씨 15~20도는 되어야 꽃을 피웁니다. 따라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무르익을 무렵에야 볼 수 있는 꽃이지요.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 미국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계속 품종 개량을 한 결과, 지금은 늦가을을 시작으로 겨울을 넘겨 봄까지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꽃이 되었습니다.

보라, 하양, 빨강, 노랑 등 갖가지 색으로 피어나는 팬지는 스산하고 은써년스러운 계절에 우리를 향기로운 사색의 꽃밭으로 인도합니다.

생각의 씨앗은 스스로

바람이 불자 팬지가 품고 있던 생각의 씨앗이 아이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옵니다. 가슴 속에 들어온 그 씨앗은 물과 햇빛의 힘으로 착 티을 준비를 하더니, 드디어 떡잎을 내고, 줄기를 뻗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땅에 떨어진 열매는 또 다른 씨앗을 주위에 퍼뜨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각의 씨앗'은 그 누구도 대신 착 티우고 키워 줄 수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스스로 헤쳐 나가는 수밖에요.

물론 걱정도 됩니다. 행여 착을 못 티우면 어찌지? 힘들게 낸 가지가 비바람에 부러지면 어찌지? 하지만 애벌레가 번데기를 뚫고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해서 번데기 껌질을 벗겨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벌레는 분명 번데기 속에서 죽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번데기 속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힘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때로는 힘들게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팬지가 그러하듯이. ━



신을 거꾸로 신은 부처님

보현

실보사 전수



한 시골 마을에 일찍이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어린 아들은 본인이 오직 의지할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아들이 무조건 우선이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신발 등등등. 나쁘고 못 쓸것만 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른 아들은 커서도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으레 자기가 먹고, 입고, 쓸 줄만 알았지 어머니는 못 쓸것을 드리면서 구박과 천시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서러운 마음이 생겼지만 본인의 자업자득으로 어릴 때부터 자신이 그리 가르쳐 왔기에 어찌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하루, 아들은 어머니께 상의도 없이 산골 논다랑이를 다 팔고 개똥밭 서마지기까지 다 팔아 한양으로 돈 벌려 간다고 떠나는 것 이었습니다. 어머니야 굶든 병이 들든 돌아가시든 상관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아들을 막을 길 없는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고개 너머로 사라지는 무정한 아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다 가 횡한 빙 집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아들은 큰돈을 벌어보려고 이런 저런 장사를 여러가지를 해 보았으나 웬일인지 하는 것마다 다 손해나고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홀어머니가 고생하며 모은 재산을 몽땅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자 억울함에 자신의 팔자를 점 쳐보려고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본 점쟁이는 “당신은 하는 일마다 실패했구려. 당신은 돌아가서 신을 거꾸로 신은 부처님만 잘 위하면 만사대통하겠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들은 아들은 좋아라 하며 절을 찾았다합니다. 신을 거꾸로 신은 부처님만 뵈면 인생이 잘 풀린다 하였으니 부처님만 찾으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깊은 산에 있는 절마다 찾았다니며 수도자들에게 신을 거꾸로 신은 부처가 있느냐고 묻고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이상하다는 듯이 비웃고 수근거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허탕을 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나 되고 보니 부처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실망감에 지친 아들은, 돈도 떨어지고 신도 떨어져 더 이상 찾으려 다닐 수가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어머니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려 집에 도착하여 집에 도

착한 아들은 싸리문을 두드리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자신이 짚어죽든 병들어죽든 상관없다며 매정하게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버린 아들이 찾아온 것인데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오! 네가 돌아왔구나. 살아 돌아왔구나.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여 오너라. 아들아.”하며 허둥지둥 싸리문을 열고 달려 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매만지던 어머니는 까칠한 아들의 얼굴에 눈물을 훔치며 밥을 내오겠다며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명하니 쳐다보던 아들의 눈에 어머니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아들은 크게 깨달으며 어머니를 향해 절을 하였습니다.

“신을 거꾸로 신고 계신 부처님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불효막심했던 자신의 모든 잘못을 눈물로 뉘우치고 그날부터 어머니를 부처님을 섬기듯 무엇이든지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신발 등등등 좋은 것이 생기면 언제나 어머니께 먼저 드리고 “어머니~ 어머니~”하며 어머니께 모든 것을 먼저 바치며, 꼭 부처님을 모시듯 온갖 정성과 사랑을 오직 어머니께만 쏟았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며 아들과 함께 맛난 것을 함께 나눠먹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눠 쓰며 아들과 오붓이 잘 지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어떤 일을 하던지 잘 풀렸고 어떤 사업을 하던지 손대는 것마다 만사형통! 운수대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가도 가서 처

자와 함께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본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그의 부모님을 비록 칠보가 가득한 큰 대지의 지배자로 왕위에 모시더라도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아버지와 어머니는 참으로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니, 자식들을 키워주고 먹여주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존경과 자녀에 대한 보살핌은 나 자신을 위한 큰 복전밭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모님의 역할, 자녀의 역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나에 대한 노고, 자녀의 갸륵함을 가슴깊이 느낀다면 부모님과 나, 나와 나의 자녀의 대한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오래 가지 못하며 물질적인 것을 따진다면 어느 누가 최상의 보은과 양육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떠나 진실한 마음을 내어 나의 부모님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한 마음을 내어 나의 자녀에게 그 마음을 전해보는 보살도를 행해봅니다. 그 행함은 결국엔 나의 수행이고 나의 선업이며 나의 공덕이 될 것입니다. ▲

공경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거위의 배를 갈랐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박현희
독산고 사회교사



거위의 배를 가른 주인의 말로

어떤 사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게 되었다. 거위는 매일 황금알을 낳았다. 1년 365일 쉬지 않고 황금알을 낳았다. 하지만 꼭 하루에 한 알씩만 낳았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황금알을 낳았지만 두 개를 낳는 날은 없었다. 거위의 황금알 덕분에 가난한 농부의 살림이 활짝 편고, 그간의 고생과는 영영 이별을 했다. 그런데 그놈의 욕심이 고개

를 들었다. 왜 이놈은 하루에 한 알씩밖에 못 낳는 거야. 한꺼번에 많이 낳아 주면 그걸 밑천으로 뭔가 일을 벌여 큰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이 미련한 놈은 매일 한 알만 낳아 주네.

거위 주인은 작심하고 거위의 배를 갈랐다. 그놈의 배속에 황금이 잔뜩 들어 있을 터이니 그걸 꺼내자. 하는 생각에서 일을 벌였다. 막상 일을 저지르고 보니 거위의 배속에 황금 따위는 없었다. 거위는 죽었고, 거위 주인은 땅을 치며 후회했으나 이미 늦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어진 분수대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 이야기는 거위 주인의 후회와 함께 끝이 나지만, 책장을 덮고 나면 거위 주인의 뒷이야기가 궁금해진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제 손으로 죽여 버린 거위 주인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 절망한 나머지 미쳐 버렸을까? 아니면 자살했을까? 가족들의 비난에 못 견디고 집을 나가 노숙자가 되었을까?

우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열망한다

모든 동화가 그렇겠지만 '매일매일 황금알 하나씩'이란 은유적 표현이다. '하루 한 알의 황금알'은 풍족한 삶을 보장할 만큼의 재물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약속한 듯 굴러 들어온다는 의미 정도로 읽을 수 있다.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된다. 거위에게 먹이를 주고 안전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정도? 그 정도의 단순한 노력만으로 뭐든 손에 넣을 수 있는 풍요로운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인 우리 모두가 꾸는 꿈이다.

정말 거위가 황금알을 낳을 리는 없으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매달 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일 수도 있고, 꼬박꼬박 이자가 나오는 목돈 일 수도 있으며, 배당금이 착실하게 지급되는 우량주식일 수도 있다. 여기서 공통점은 이미 거위를 손에 넣은 이상, 그 후에는 추가적인 노력 혹은 노동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동안 우리나라 출판계를 들썩거리게 한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가 말하는 ‘부자 아빠’의 세계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너를 위해 일하도록 하라. 이 세계가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세계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면 행복해질까? 나는 임금 노동자의 자녀로 태어나 성장했으며 임금 노동자로 15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다. 임금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임금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일단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내게 있다면? 일단 나는 이 노동을 멈출 수 있다. 마음껏 취미 생활을 즐기고 그동안 못해 본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리라.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고 헬스클럽도 다녀야지.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말고, 봄이나 가을처럼 날씨가 좋을 때 여행도 다녀야겠다. 구태여 주말이 아니라도 길을 떠날 수 있으니 늘 한적한 나들을 이를 즐길 수 있으리라. 그리고 또 뭘 하지?

내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없고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느라 시간을 마음대로 써 본 적도 없으니,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생활을 상상하는

것조차 어렵다. 하지만 돈과 시간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특별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일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일을 통해 세계를 건설해 왔다. 그러니 일을 하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일이 너무 힘들고 길게 이어지는 것, 그렇게 일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삶의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내가 교사가 되어 첫 출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 “이제 너는 너만 잘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 그 일이 네게 주는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나는 어머니 말씀대로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 결과 먹고 살기 위해 일을 그만두지 않은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하는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때려치우고 싶은 충동이 불끈불끈 일어도 그 마음을 다스리며 일을 해야 하는 사정,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없는 나의 딱한 사정, 그 사정 덕분에 실은 내가 성장해 왔다. ▲

-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 줄까」



화전놀이

우연(宇研)
자석사 교도



매화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3월 중순 이맘때면 원동마을에서도 매화꽃 축제가 열린다. 오래전부터 그곳으로 귀촌하여 살고 있는 문우로부터 매화가 필 때면 한번 왔다 가라는 약속이 있었다. 갑자기 매화가 보고 싶어졌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남편은 궁금해 하는 아내를 뒤로 하고 구포역에 도착했다. 평일임에도 역사 안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상춘객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가벼운 웃차림에서 겨울은 저만치 물러가고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음을 알게 한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꽃 피는 봄이 오면 바쁜 농사일을 잠시 멈추고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화전놀이를 갔다 오셨다. 한번은 할머니가 화전놀이에서 돌아오시면서 삐~익 하고 소리가 나는 조그만 장난감 나팔을 하나 사 갖고 오셨다. 그러나 어렵게도 그 신비한(?) 나팔은 형의 전유물이 되어 버렸고 동생인 나에게는 가져 볼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 서로 가지려고 형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는 형은 우리 집안의 장손이라면서 형의 편이 되어 말씀 하셨다. 어느 비오는 날, 그렇게 갖고 싶었던 나팔은 모가지가 불어진 채 비를 맞고 집 마당 한 구석에 처참하게 버려져 있었다. 이를 본 나는 너무나 아쉽고 화가 나서 엉엉 울었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동안 화전놀이의 궁금증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도대체 화전놀이라는 것이 무었이란 말인가, 왜 할머니는 봄이 되면 화전놀이를 그렇게 좋아 하셨을까.

기차가 큰 소리를 내면서 도착한다. 철로 변에서 군데군데 모여 한가롭게 잡담을 나누면서 기다리고 있던 무리들은 순식간 기차 안으로 사라지고 만다. 나도 놓칠세라 미리 예약 해둔 좌석을 찾아 재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좌석이 창가인 것이 작은 행운으로 다가 왔다. 통로에서 서 기야 하는 입석 승객들은 전혀 개의치 않은 듯 제각기 밝은 목소리로 기차 안을 떠들썩하게 한다.

잠시 후 기차는 슬그머니 움직이는가 싶더니 어느새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차창 밖으로 해묵은 도시의 건물이 지나가고 뒤따라 녹색으로

웃을 갈아입은 농촌 풍경이 나타난다. 기차는 육중한 몸을 뒤틀면서 다시 힘을 받아 달리니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이 나타나고 어느새 목적지 원동역에 도착한다. 정차한 기차에서 마치 음식물을 토해 내듯 사람들이 밖으로 우루루 쏟아져 나온다. 대부분 원동마을 매화를 보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일 것이다.

만나기로 한 문우가 조금 늦겠다는 연락이 왔다. 혼자의 시간을 즐기고 싶었던 차 오히려 잘 된 일이라 생각하면서 주위를 어슬렁거려 본다. 한쪽 귀퉁이에 마치 왕따가 된 듯 뒤 돌아 앉아 있는 벤치가 나를 향해 손짓 하는 그곳으로 가서 앉았다. 조금 전까지 기차에서 내린 승객들로 마치 시골 5일장처럼 약자지껄하던 역 앞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산하고 적막감마저 찾아 듦다. 벤치에 몸을 비스듬히 기대고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하다. 눈을 살짝 감으니 언덕 너머로 매화 향기와 봄의 기운이 전해 오는 듯하다.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꼬마 아이들이 강아지와 함께 주위를 맴돌다가 사라진다.

아! 편안함이여~ 한 낮의 여유로움이여~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벤치에서 일어나 화살표가 가리키는 매화 언덕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길은 이미 사람들의 긴 행렬로 줄지어 있다. 조금 전에 누렸던 여유로움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마음만 바빠 온다.

언덕 길 아래로 기찻길이 지나 가고 그 옆으로 낙동강이 눈에 들어온

다. 언덕을 따라 피어나는 매화는 사람들의 인파가 못 마땅한지 꽃 봉우리만 살짝 드러낸 채 얼굴 공개를 거부하는 듯하다.

뒤 늦게 도착한 문우의 강권에 승용차를 타고 더 깊숙한 배네골로 향했다. 그곳에는 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알리는 청초한 매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다. 도착한 곳은 어느 작은 사찰- 먼저 법당에 들러 부처님께 공손히 3배의 예를 올리고 좌정하여 깊은 생각에 잠겨 본다. 주위는 고요하여 바람 소리만 들린다. 이른 아침부터 매화를 찾아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 기이하다. 법당 문을 나서려는데 스님이 다가와 무비스님의 화엄경 해설서 한권을 조용히 내민다. 공손히 감사함으로 받아 들고 경내 주위를 여기저기 둘러본다. 내가 찾던 매화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허탈한 마음과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니 밤은 깊었다.

다음날, 새벽 운동을 가기 위하여 집을 나서다 멈칫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아파트 중문 계단 양 옆으로 보초를 서 듯 새빨간 꽃, 연분홍색 동백꽃이 오월의 장미처럼 나를 알아보고 환한 얼굴로 인사를 하고 있다. 아이들의 놀이터에서는 하늘 높게 자란 벚꽃나무가 마치 여러 개의 가로등을 합쳐 놓은 것처럼 환하게 새벽을 밝힌다. 그 옆 벤치 가까이에는 목련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떨어지고 있다. 아파트 담사이로 진달래가 붉은 물감으로 덧 칠하고 있었다.

바로 가까이에 이렇게 멋지고 예쁜 꽃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꽃을 찾아 저 멀리 찾아 해매였던 것이다.

그래도 50년 전 할머니의 화전놀이는 여전히 궁금하기만 하다. ▲

절실한 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공

아마 골프팬이라면 잘 아실 선수인

신지애 선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신지애 선수의 국내외 활약상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듯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 골프라는 꿈을 발견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남들처럼 제대로 된 훈련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신지애 선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루 천 번의 스윙을 소화해 내던 실내 연습장 벽면에 붙어있는 골프 장 사진을 보며 신지애는 늘 말했습니다. ‘저 골프장에서 공 한번만이라도 쳐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가 열 여섯 살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교통 사고로 돌아가셨고, 동생들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지막 유산처럼 생명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빚을 다 갚고 천 칠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엄마 목숨과 맞바꾼 돈이다. 앞으론 한 타 한 타를 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걸고 쳐야해.”



▲ 신지애 선수 (사진출처 연합뉴스)

그 말에 신지애선수는 뒷통수를 얻어 맞은 듯 명해졌습니다. 엄마의 목숨과 맞바꾼 돈, 그 돈으로 내가 골프를 하다니...

신지애선수는 열 여섯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두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살릴 길은 골프 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만에 국가 대표가 되었고, 국내 대회에서 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계 최고 선수들이 경쟁하는 LPGA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태극기를 가지고 스카이ダイ버들이 내려왔고, 그녀는 태극기를 받아 온 몸에 두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끝까지 나를 믿어 주었던 엄마, 나 드디어 해냈어!”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지에는 우승컵을 가슴에 안고 밝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녀를 바라보며 기쁨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골프는 마지막 희망이자 그녀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절실한 꿈, 그리고 굳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신지애 선수의 성공은 지금도 초록색 필드에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



무거우면 내려놓지

법일
벽룡사 주교



어떤 사람이 영험 있다는 어느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스님. 저는 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매일 같이 이어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제발 저에게 행복 해지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스님은

“제가 지금 정원을 가꿔야 하거든요. 그동안 이 가방을 좀 가지고 계셔주세요.” 라며 부탁을 한다.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다지 무겁지는 않았다. 그는 행복해지는 비결을 가르쳐주지는 않고 가방 을 들고 있으라는 부탁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정원 가꾸는 일이 급해서 일거라 생각하고 가방을 들고 있기로 했다.



그런데 30분쯤 지나자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님은 도대체 일을 마칠 생각이 없는지 일 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다못한 이 사람이 스님께 물었다.

“스님. 이 가방은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합니까?”

이 말은 들은 스님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무거우면 내려놓지 뭐하려 지금까지 들고 계십니까?”

바로 이 순간 이 사람은 커다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행복하기 위해선 바로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다.

**내려놓으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데,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그 무거운 것을 꼭
움켜잡고 내려놓지를 못하니 힘들 수 밖에요.
마치 가방처럼 말입니다. ■**



반연

攀
緣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攀 더위잡을 - 반

緣 인연 - 연

불교와 서양심리학은 마음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무아^{■■■}와 자아^{■■■}의 강화라는 대비 속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갖는다.

서양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충동감의 억제, 자존감, 세속적인 능력 등으로 정의되는 자아의 필요성을 강조 한다.

반면에 불교는 이러한 자아의 강화는 삼독^{■■■}¹⁾의 중독을 점점 악화시키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중독은 일체 대상에 분별하고 집착하는 반연^{■■■}을 통해 일어난다. 반연은 유충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불잡은 후에야 불들고 있는 것을 놓아 버리는 것과 같은 자아의 습성을 말한다.

이러한 습성을 바탕으로 계속 무언가를 불잡음으로써 연속되고 일관된 '나'라는 느낌과 '나'라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나'는 부서지기 쉽

고 무너지기 쉽다. 그래서 '나'라는 영토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불안이 야기된다.

그러므로 삼독의 중독에서 회복되는 일은, 일체 번뇌의 근본이 되는 반연을 쉬는 것에서 시작된다. ▲



1) 三毒: 탐욕(貪欲)과 진애(瞋恚)와 우자(愚癡), 곧 담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과 노여움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번뇌는 일반에 이르는데 장애가 되므로 삼독(三毒)이라 함.

속세

俗世

俗 풍속 - 속

世 인간 - 세

❶ 세속 사람들이 사는 세상.

종교 신앙의 세계나 선경[■]과 대비되어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을 뜻하는 말.
 출가하지 않은 범부들이 사는 평범한 세계.

❷ 희로애락 · 원근친소 · 시비장단 · 염정미추 ·

시기질투 · 중상모략 등이 가득 찬 세상.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미혹한 중생의 세계.
 속세 또는 세간이라고 함.

❸ 세상 사람들의 풍속. 속된 습관.

삼독오욕^{三毒五欲}과 시비이해^{非利益}로 얹힌 현
 실세상으로 수도인들이 사는 청정도량^{淸淨道場}
 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속[■]은 모습을 드러내어 세상 흐름에 따른
 다는 뜻, 또는 모습을 드러내서 인정에 따른
 다는 뜻이다.

세[■]는 진리를 뒤덮고 있다는 뜻, 또는 훼손
 되거나 파괴된다는 뜻이다.

유식술기^{非識述記}에

「世謂覆障(세위복장) 可毀壞義(가훼괴의) 俗謂顯現(속위현현) 隨世流義(수세류의)」라 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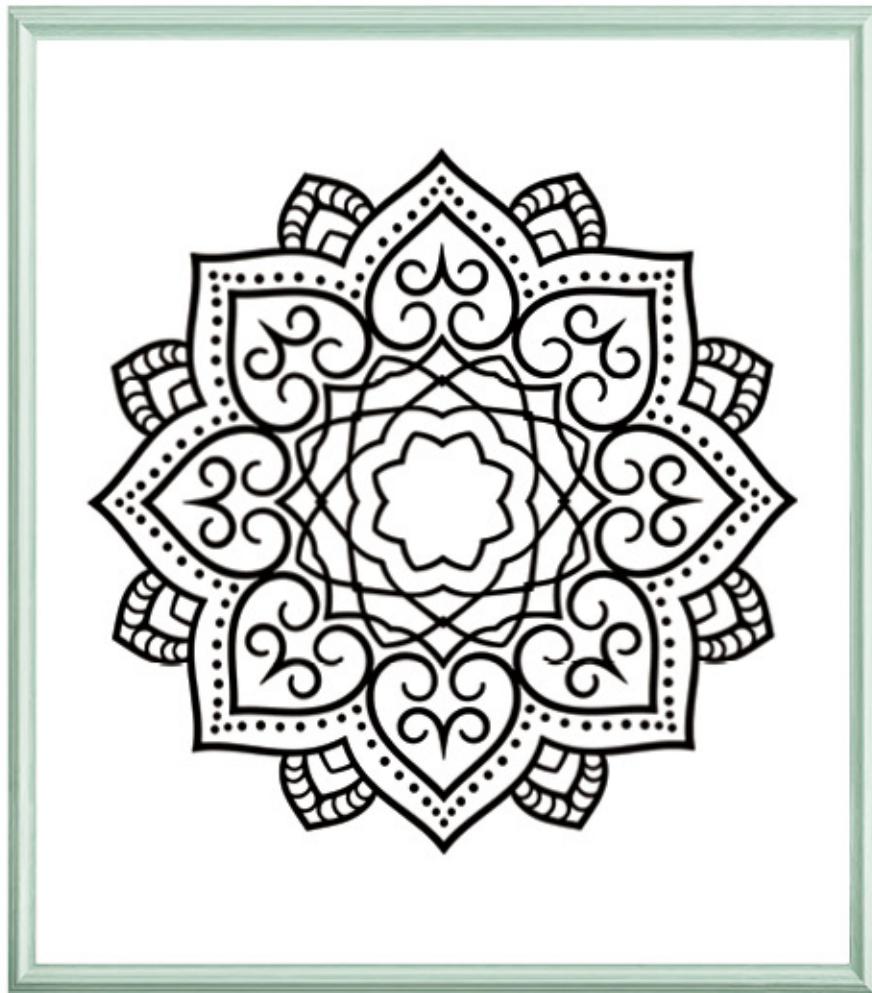
또 구사광기^{俱舍光記}에

「세속이라 함은 편견 있는 법으로서 진리를 가리고 장애하는 세상을 일컫는다. 또 사상[■]이 현현[■]하여 속세의 정을 수순[■]함을 일컫는다……」고 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속세>를 속인의 세상이라는 뜻으로 쓰며,
 <세속>은 세상의 풍속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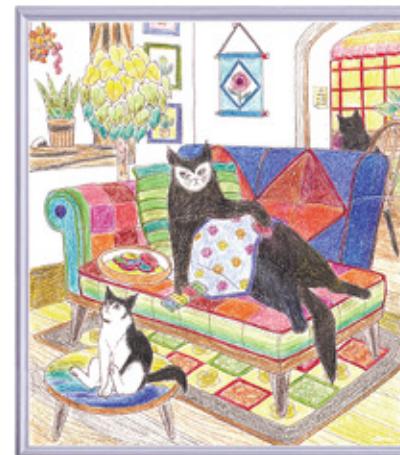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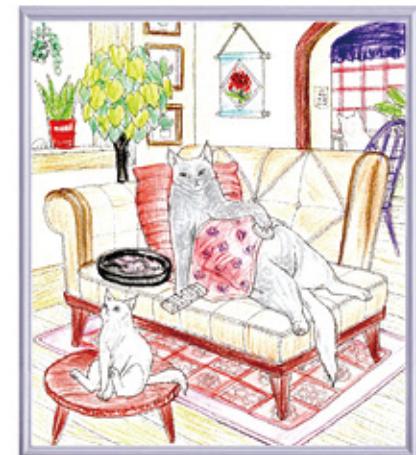
지난 호 독자 솜씨



▲ 울산 실보사 이유정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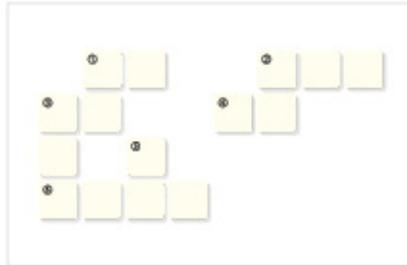


▲ 서울 관악구 전태준 님



▲ 울산 실보사 김지미 님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 됩니다.



세로문제

- ① 웃어른께 안부를 여쭙. 또는 그런 인사.
 - ② 운명이나 운수가 닥쳐오는 기세
 - ③ 혈액의 유형. 적혈구와 혈청의 응집 반응을 기초로 분류하는데, ABO식 혈액형과 RH식 혈액형 따위가 있다
 - ④ '무덤'과 같은 말

가로문제

- ① 문틀이나 창틀에 끼워서 여닫게 되어 있는 문이나 창의 한 짹
 - ② '운전사'를 낮잡아 이르는 말
 - ③ 열안(熟眼)과 같은 말. 기를 쓰고 달려들어 독이 오른 눈
 - ④ 세속 사람들이 사는 세상 (p76 참조)
 - ⑤ '형제가(형과 애우 사이)'와 같은 말

한국전통문화재인증센터는 전통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연구·교육·증명·증명서 발행·증명서 판권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sunmac72@naver.com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종

보내주신 후워에 감사드립니다

강민우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종철	류병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지정	총지화
최수기	한미영	허자율	



-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드다르마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행일 총기 47(2018)년 5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디자인 (주)디자인자
인쇄 동림기획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편집 후기

화창한 5월은

화창한 5월 단계

좋은 날씨가 많은 달이다

날씨 때무일까?

봄나들이를 계획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껏 감사의 인사를
제대로 못 했던 분들을
찾아뵙고 마음을 전한다.

이번 5월에는 부처님오신날이 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면서
부처님께서
이 땅위에 오신
큰 가르침을
새겨보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5월호



겸손하라

위선의 장막 뒤에서

권세를 업고 으스대는 그대

후환이 두렵지 않은가

- 환당 대종사 -